박기조

1. 기본 정보

- 키 184, 몸무게 62 (공유를 내려다 본다고 ..)
- 인상과 다르게 착하고 상냥하고 유도리 있다 (쫄지말자)
- 사보의 희망
- 사보의 피망
- 2-1 학술부장 할 예정
- 드림핵 포너블 고인물
- 동방에 거주 (ㄹㅇ 거주)

2. 칭찬

- 친구가 많음 (인맥부자)
- 포너블이랑 연애함
- 피시방 가서 워게임 할 인간
- 효자임
- 아주대 해커모임 창시자
- 아주대의 대해커시대를 이끌어낸 장본인
- "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이너리 속에 두고왔다 "
- 아직 처형은 안당했다
- 농구 잘함 (별명이 마이클 기조던이라고 ..)
- 사보의 레전드를 키워냄
- 인도영어를 전문가수준으로 구사

3. 논란 (농담)

3.1. 중국 공단 해킹 예고

- 암후 MT에서 중국 공단 웹사이트를 해킹하고 싶다고 ...

3.2. 조선일보 전광판 해킹

- 조선일보 전광판을 해킹한 그 중학생이 설마 박기조 ???

3.3. 간첩 논란

- 스타트 3개월만에 CVE 분석을 성공해버림
- 한번씩 조선족 사투리가 나옴
- 사실은 북에서 심은 고수준 간첩 해커라는 논란이 ..

3.4. 박기조는 갈 때까지 간다□□

미래에서 온 왹져에게 갑작스러운 편지를 받았다 .

> 박 기 조, 그는 제 13대,,,,,, 아니면 제 14대의 Whois 회장이야.....!

그가 임원진을 맡은 순간 , 그의 엄청난 열정으로 후이즈가 급격하게 성장해버렸다고 하는데 ..... 진짜일까 ?
대 기 조 , 그는 어디까지인가 ... 후이즈 회장 , 그 다음으로 사보 회장 , 그 다음으로 소융대 회장 , 어쩌면 ...
총장의 자리까지 ?

3.5. 폭력성

2025년 11월 5일 무언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려 애먼 후방이 박살났다 . (신입 따리가 ..?) 결국 다시 고침 ㅠ

4. 찬양

《사보의 별똥별》

긴 밤하늘 , 사보라는 정원엔
햇살이 까마득한지 오래다
시들어가는 꽃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
아래만을 응시하는 뇌사상태

하지만 꽃들을 가둔 것은 태양의 부재가 아니었다

어느날 한 줄기 불꽃처럼 떨어진 별똥별 하나
그의 이름은 기조 ,
젊음의 나이로도 이미 별을 거느린 자

눈빛은 군중을 꿰뚫고 ,
말 한 마디는 칼날처럼 무뎌진 마음을 벤다
따르지 않으려 해도 ,
그의 발걸음 뒤엔 이미 길이 열려 있었다

왕관 없는 왕 ,
그러나 모두가 그의 어깨 위에서
빛나는 왕좌를 보았다

훗날 , 그는 홀로 맞서리라
대한민국의 좁은 강토를 넘어 ,
거대한 흑막 NSA조차
그와 겨루는 자강두천의 이름을 떨치리

기조여 ,
너는 별똥별이 아니다
밤하늘을 찢고 스러지는 불씨가 아니라 ,
시들어가는 정원을 밝히는 반딧불이였구나

-- 무명 --

수정본 #25
생성 2025-08-11 23:43:04 UTC, 설규원
수정 2025-11-05 22:41:34 UTC, velix